

육계 복경기 준비 현장 - **보개농장**

스트레스 감소시켜 건강한 닭으로 키우자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끝나고 첫 복을 맞은 육계농가들의 손이 분주하다. 경기도 안성에서 닭 15만수를 사육하는 김명호 보개농장 사장을 찾아 복을 대비한 육계농가의 준비사항을 알아보았다.

30°C가 넘는 더위에 맞는 환기 관리 중요하다

30년 넘게 닭을 길러온 김명호 사장이 여름 더위 속에서도 생산지수 1.7의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비결은 계사 단열이라고 꼽고 있다. 김 사장은 평당 80만원 건축비의 대부분을 우레탄으로 사용한 실정인데 단열재의 효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른다고 말한다. 단열재를 충분히 사용하여 외부 온도가 40°C이상 올라가더라도 견디고 있으며, 안개분무를 이용하여 환기를 조절하고 있다.



▲ 복 닭 생산에 여념이 없는 한경택 사장(좌)과 김명호 사장(우)

무창계사와 달리 개방계사에서는 여름철 한낮의 복사열을 견디어 내기 힘든데 계사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10°C이상 되면 뿔을 돌리면서 계사 안에 물을 직접 뿌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김명호 사장, 물론 이런 방법을 썼다가 피해를 입은 농가도 있지만 정확한 방법을 습득하면 피해가 없다고 조언도 아끼지 않는다.

여름철 닭관리 외부 기온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2~3시에 닭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2시에서 6시까지 열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저녁 6시 이후 닭은 대량 폐사가 시작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낮에는 닭을 꾸준히 움직여 닭 체내의 열을 꾸준히 발산하도록 하는 것도 더위 스트레스를 푸는 비결이다.

충분한 비타민제와 생균제 보충

더위 스트레스로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면 닭의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후기사료 급여 때부터 닭 무게는 하루 60g 이상씩 증체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때 김사장은 생균제, 비타민 등을 충분히 보충하여 약추와 병계를 미리 방지하고 있다. 더불어 외부 질병 차단을 위해 올해 안성시로부터 차량소독기 설치자금의 70% 지원받아 소독기를 설치하였고, 각종 백신은 기준치 보다 높게 투약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닭 100수에 음수용 백신을 하면 혹시 먹지 못할 닭을 위해 130수분을 공급하는 것이다.

올 여름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기상대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7월 20일 초복을 맞은 김명호 사장 같은 육계농가들은 온도관리에 더욱 신경이 쓰이고 있다. 건강한 닭 생산으로 육계 농가들의 수익도 늘어나기를 기대해 본다.(정리 | 김종준 과장) **양계**